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유형에 따른 참여 결정요인 탐색*

박 세 림¹⁾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이 강 이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교육 참여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학교 및 동기 요인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실시한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1-6학년 학부모 778명의 자료에 대하여 기술통계와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학교참여 세부활동을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자녀/학교 관련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면대면/비면대면 상담, 오프라인/온라인 학부모교육)으로 구분하였을 때, 각 활동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이 다르게 나타났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는 거주지 규모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인 경우 학교 관련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 면대면 상담, 온라인 학부모교육의 참여 가능성이 더 낮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맞벌이 부모의 경우 비면대면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만 더 높았다. 둘째, 자녀 요인 중에서는 학교생활과악 정도가 높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을수록 상담 및 학부모교육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았다. 셋째, 학교 관련 요인 중에서는 교육정보제공 만족도와 학교참여지원 만족도가 높을수록 상담 및 학부모교육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았다. 넷째, 활동유형에 관계없이 외부 요인보다 학부모의 참여 동기와 관련된 내부 요인이 참여 여부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활동 특성에 따라 활성화 방안과 제도적 지원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학부모 학교참여,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 학부모상담, 학부모교육

*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17S1A5B8A02072579).

1)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2)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및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겸임연구원
(E-mail: kangyil@snu.ac.kr)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팀이 신설되고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하는 명시적인 학부모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적극적인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및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왔다. 학부모가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학교-학부모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녀의 건강한 발달과 교육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중요하다(홍송이, 2016). 이전까지는 학부모가 수동적으로 학교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쳤던 것에서 벗어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학부모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이를 위하여 2013년부터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학부모회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였다. 또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사업을 통해 예산을 지원하여 단위학교 학부모회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우수 사례 공모전을 통해 학부모 참여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였다(이강이 등, 2020).

학부모의 학교참여는 ‘학교 운영의 제반 과정에 학부모가 관여하여 자녀교육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다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주동범, 2018). 이 정의는 학교와의 소통을 강조하고 학부모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

소로서의 학교에 주목하며(권순범, 김월섭, 진미정, 2017), 학교와 학부모가 직접 접촉하는 다양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활동 참여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에서는 ‘학교참여’와 ‘교육참여’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혼용되어 왔다(진미정, 김봉세, 권순범, 2019).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인 개념인 교육참여(진미정 등, 2019)와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학교공동체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보다 초점을 두는 의미에서의 ‘학교참여’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학부모의 적극적인 학교참여는 자녀에게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내면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업성취와 심리적 적응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주동범, 2018). 선행연구들은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교적응(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3; Epstein, 2010), 학업성취(권순범 등, 2017; Fan & Chen, 2001; Jeynes, 2007) 등 자녀의 교육성과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임선아, 2011)을 보여주었다. 최근 수행된 실태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77.2%),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학교교육 개선 활동에 참여 의사가 있다(62.7%)고 응답하여 학교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과 참여 의향 또한 긍정적인임을 보여주었다(이강이, 박새롬, 2020). 그러나 실제로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1%로, 인식과 실제 참여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학부모의 학교참여와 관련하여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학교참여 실태조사

(류방란 등, 2015; 이강이, 박새롬, 2020; 최상근, 김형주, 전선미, 2011), 학교급 및 학교유형별 참여 사례에 대한 질적 연구(전은희, 강민수, 2013; 전은희, 서덕희, 2014),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예측요인 및 결과요인을 밝히는 연구(김소영, 진미정, 2015; 김지영, 이강이, 2020; 양수경, 김현철, 남진현, 2011; 최인숙, 이강이, 2013) 등이 수행되어 왔다. 특히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 연구들이 활발히 수행되었는데, 이 연구들에서는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관련 요인, 참여 동기 요인 등으로 나누어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성별, 거주지 규모, 부모의 교육수준 및 가구소득, 맞벌이 여부 및 직업 특성 등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지역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교육수준과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전업모의 경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소영, 진미정, 2015; 변수용, 김경근, 2008), 취업모의 경우에는 직종과 근무탄력성 등이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아, 진미정, 2012). 자녀 관련 요인으로는 자녀의 성별, 학교급, 성적 등이 학부모의 참여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는데 여아보다 남아의 경우(김은영, 권순범, 진미정, 2018), 학교급이 낮을수록(김소영, 진미정, 2015), 성적이 우수할수록(심미옥, 2003; Feuerstein, 2000) 학부모 참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요인들은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적응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

인들로, 자녀가 학교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자녀의 적응 수준에 대한 평가가 학부모 학교참여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 동기 또한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홍송이, 2016),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학부모 참여 동기 요인은 크게 학교참여 및 참여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관련 요인과 교육신념 및 양육역량을 반영하는 양육 관련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대한 인식 관련 요인 중에서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가 자녀의 발달과 학교적응, 그리고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소영, 진미정, 2015). 양육 관련 요인 중에서는 교육열로 대표되는 학부모의 자녀교육 신념(이세용, 2003), 그리고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 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는 부모효능감(김소영, 진미정, 2015; 최인숙, 이강이, 2013; Hoover-Dempsey et al., 2005) 등이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여기는 교육열이 학교참여의 주된 동기(주동범, 2018)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교육열의 실천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과 학교참여 간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단위학교의 학부모 참여에 대한 인식, 학부모 의견 수용 개방성, 교육정보 제공 등과 같이 학부모 참여를 지원하는

학교의 특성과 관련된 요인들이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김은영, 진미정, 김월섭, 오재길, 2019; 이세용, 2003), 이와 관련된 연구도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살펴본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요인, 참여 동기 요인과 학교 관련 요인을 포함하여 학부모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교사와의 상담 및 소통, 학부모회 참여, 학교의 주요 행사 참석, 자원봉사 활동, 학부모교육 등 학부모 참여 활동을 포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 학부모 참여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활동별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는 다음과 같이 크게 다섯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1) 가정-학교의 소통(학부모 상담, 학교설명회 등), 2) 가정과 학교의 학습 연계, 3) 학부모 역량강화(학부모교육, 학부모동아리 등), 4) 학교 의사결정을 위한 학부모 참여(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등), 5) 학부모 참여 및 교육기부(자원봉사/교육기부, 학교행사 참여 등). 각 활동별 참여율을 통해 학부모 참여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최근 조사에서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을 1회 이상 한 학부모는 76.5%, 비면대면 상담을 1회 이상 한 학부모는 78.4%로 나타난 반면,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29.1%이었다. 교육기부/자원봉사 활동 중에서도 교내외 안전/생활지도 활동에 1회 이상 참여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62.2%로 다른 활동에 비해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강이, 박새롬, 2020). 반면 오프라인 학부모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한 학부모는 39.1%, 온라인 학부모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13.8%로 활동에 따라 참여율에 큰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선행연구들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류방란 등, 2015; 이강이 등, 2020), 이는 학부모 참여 활동의 특성이 매우 이질적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회와 같이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학교운영 및 지원에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참여가 요구되는 활동에는 참여율이 더 낮은 반면, 자녀교육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연속성이 낮은 교사와의 상담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특성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대부분 학교참여 활동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학부모의 학교참여 결정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학교참여 활동 중 일부 활동에 초점을 두어 영향요인을 밝힌 몇몇 연구들이 있었으나(김은영, 장유진, 2020; 최인숙, 이강이, 2013), 활동별 비교가 이루어지지 않아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유형별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에 초점을 둔 이유는 자녀의 학령 또는 학교급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참여율이 달라지는데(김소영, 진미정, 2015), 초등학교에서 보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학부모 참여가 이루어지는 반면 중·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참여 활동이 비교적 제한적이며(Hill & Tyson, 2009) 주로 학교에서 주도하는 활동에 참석하는 형태로 변화하게 되기 때문이다(Seginer, 2006).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3)의 학교활동 참여 분류 중 학교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중심으로 크게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으로 구분하고,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으로는 자원봉사, 교육 기부, 학부모회 활동을, 자녀교육 관련 활동으로는 상담, 학부모교육을 세부활동으로 포함하여 각 세부활동별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중 자원봉사는 활동 특성에 따라 자녀 관련 및 학교 관련 활동으로 세분화하였다. 자녀교육 관련 활동에 포함되는 상담 및 학부모교육은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비대면 상담 및 온라인 학부모교육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각각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을 반영하여, 대면/비대면 상담, 오프라인/온라인 학부모교육을 구분하였다. 결정요인은 앞서 논의한 바에 같이 크게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동기 요인으로 나누어 세부활동에 따라 영향력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의 특성 및 학교활동 참여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자녀/학교 관련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면대면/비면대면 상담, 오프라인/온라인 학부모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동기 요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조사한 2019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 대상은 첫 자녀가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총 1,500명이었으며, 2020년 7월 2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시점인 2020년 7월에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환경이 크게 변화된 점을 고려하여 지난 1년(2019년)의 경험을 기준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0년에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부모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내용에는 학부모의 부모역량, 가정 교육지원 활동 등 자녀교육 실태, 다양한 참여 영역별 학교참여 실태(자원봉사, 교육기부, 상담, 학부모교육, 학부모회 활동 등), 학부모정책에 대한 인식 및 만족도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비해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에 초점을 두어 학교참여 활동별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초등

학교 학부모 778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측정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은 표 1과 같이 참여 목적 및 활동 형태에 따라 크게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및 자녀교육 관련 활동으로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부활동별로 참여 여부를 측정하였다.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은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여 지원하는 활동으로,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 활동이 포함되며 자원봉사는 활동 특성에 따라 자녀 관련 및 학교 관련 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자녀교육 관련 활동은 자녀의 학교생활 및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량 강화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으로, 교사와의 대면/비대면 상담, 오프라인/온

라인 학부모교육이 포함되었다. 각 세부활동에 대하여 지난 1년(2019년)간 1회 이상 참여한 경우 1, 참여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더미코딩하였다.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

활동별 학부모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을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요인, 학교 관련 요인, 그리고 동기 요인으로 구분하여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각 요인에 포함된 변수 및 측정도구는 표 2와 같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에는 응답자 성별(아버지, 어머니),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 규모, 맞벌이 여부가 포함되었으며, 자녀 요인에는 자녀 성별, 학년, 성적, 자녀의 학교생활과 학업 정도, 부모가 평가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포함되었다.

학교 관련 요인은 본 연구에 사용된 실태조

표 1.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구분

구분	세부활동	활동내용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자원봉사 (자녀 관련)	교내외 안전 및 생활지도(교통지도, 생활지도 등) 모니터링(수업, 방과후 활동, 급식 모니터링 등)
	자원봉사 (학교 관련)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 학교 운영·행사 지원(학습자료 준비, 환경정화, 운동회 등)
	교육기부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학부모리더) 각종 교육활동 지원(창의체험활동, 진로교육, 특강 등) 학생상담(진로상담, 멘토링 등)
	학부모회 활동	학부모회 활동 참여
	면대면 상담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
자녀교육 관련 활동	비면대면 상담	교사와의 비면대면 상담(전화, 문자, 이메일 등)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오프라인 학부모교육(학교, 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등)
	온라인 학부모교육	온라인 학부모교육(학부모On누리 등)

표 2.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 구성 및 측정

구분	변수	측정
사회인구학적 요인	응답자 성별	아버지 = 0, 어머니 = 1
	교육수준	대졸(2년제) 이하 = 0, 대졸(4년제) 이상 = 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기준집단), 300-599만원, 600만원 이상
	지역규모	대도시(기준집단), 중소도시, 읍면지역
	맞벌이 여부	외벌이 = 0, 맞벌이 = 1
자녀 요인	성별	남아 = 0, 여아 = 1
	학년	저학년(1-3학년) = 0, 고학년(4-6학년) = 1
	성적	상위권: 상위 30%(기준집단), 중위권: 상위 31-60%, 하위권: 하위 40%
	학교생활과악	자녀의 학교생활(시간표, 등교시간, 과제, 학교규칙 등), 교사(담임, 방과후 등)와의 관계, 친구(학교, 동네, 선후배)와의 관계, 학교 끝난 뒤의 활동(방과후 교실, 방과후 돌봄, 학원 등), 자녀의 SNS 활동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정도. 5개 문항 5점 척도(1점: 매우 잘 안다 ~ 5점: 전혀 모른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평균 산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의미함 (Cronbach α = .84)
학교관련 요인	학교생활적응	자녀의 학교생활(시간표, 등교시간, 과제, 학교규칙 등), 교사(담임, 방과후 등)와의 관계, 친구(학교, 동네, 선후배)와의 관계에 대하여 부모가 평가한 적응 수준. 3개 문항 5점 척도(1점: 매우 잘 지내고 있다 ~ 5점: 전혀 잘 지내지 못한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평균 산출.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Cronbach α = .84)
	교육정보제공 만족도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1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함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시 학부모들의 의견이 학교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함
	학교참여지원 만족도	“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1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함
동기요인	학교운영주체 인식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등과 더불어 학교운영의 주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알고 있다 = 1, 모르고 있다 = 0으로 더미변수화함
	자녀영향정도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인성발달, 학업성취,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에 각각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4문항 4점 척도(1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4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평균 산출. 점수가 높을수록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Cronbach α = .86)
	학교교육발전 기여도	“학교교육참여가 활성화된다면 학교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문항에 대한 응답으로, 4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사용함
	부모효능감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의 부모효능감 척도 11문항의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평균 산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함 (Cronbach α = .92)
	부모-자녀 동일시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여기고 희생을 감수하는 정도(심미옥, 2003)에 대한 4문항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평균 산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자녀 동일시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Cronbach α = .73)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지원 활동의 실제(심미옥, 2003)에 대한 척도이며, 학습분위기 조성, 학습지도, 생활통제, 시간통제, 정보수집, 문화적 경험의 6개 하위영역 23문항으로 구성됨. 5점 척도(1점: 매우 그렇다 ~ 5점: 전혀 그렇지 않다) 점수를 역코딩하여 평균 산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Cronbach α = .87)

사 데이터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집된 것이었으므로, 학교의 지원과 관련된 학부모의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여기에는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정보 만족도, 학교교육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시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 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학교참여 활동에 있어서는 학부모 자신의 주관적인 인식이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의 경험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문항을 학교 관련 요인으로 포함하였다. 이 지표들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여 직접 수집된 데이터는 아니지만, 학교가 학부모를 교육동반자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는 학부모 참여를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접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

학부모의 참여 동기 요인은 크게 인식 관련 요인과 양육 관련 요인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인식 관련 요인에는 학부모 자신을 학교운영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는지의 여부, 학교참여가 자녀의 발달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그리고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포함되었다. 양육 관련 요인으로는 학부모의 자녀 교육 신념 및 교육지원 활동의 실체가 학교참여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효능감, 교육열을 반영하는 부모-자녀 동일시, 교육열의 실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을 포함하여 분석이 이루어졌다.

3. 분석방법

자료는 SPSS 23.0(IBM Co., Armonk, NY)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과 기술통계치를 확인하였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학교참여 결정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위하여 8개 학교참여 세부활동(자녀 관련 자원봉사, 학교 관련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 대면 상담, 비대면 상담,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온라인 학부모교육)별로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동기 요인에 따른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 특성 및 학교활동 참여의 일반적 경향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의 특성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통해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으로 투입한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학교 및 동기 요인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빈도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응답자의 대다수는 어머니(88.5%)였으며, 교육수준은 4년제 이상 대졸자가 62.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30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인 가구가 절반 이상(57.7%)으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거주지의 지역규모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응답자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17.6%로 가장 적었다. 맞벌이 여부는 맞벌이 가정이 64.1%로 외벌이

표 3.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의 특성: 빈도분석

구분	변수	n (%)
사회인구학적 요인	성별	어머니 697 (88.5)
		아버지 91 (11.5)
	학력	2년제 대졸 이하 292 (37.1)
		4년제 대졸 이상 496 (62.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65 (8.2)
		300-599만원 455 (57.7)
		600만원 이상 268 (34.0)
	지역규모	대도시 301 (38.2)
		중소도시 348 (44.2)
		읍면지역 139 (17.6)
	맞벌이여부	외벌이 283 (35.9)
		맞벌이 505 (64.1)
자녀 요인	성별	남아 401 (50.9)
		여아 387 (49.1)
	학년	저학년(1-3학년) 452 (57.4)
		고학년(4-6학년) 336 (42.6)
	성적	상위권(상위 30%) 421 (53.4)
		중위권(상위 31-60%) 269 (37.8)
		하위권(하위 40%) 69 (8.8)
동기 요인	학교운영주체인식	알고 있음 621 (78.8)
		모르고 있음 167 (21.2)
전체 N (%)		788 (100.0)

(35.9%)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특성을 보면 남아와 여아가 비슷한 비율이었고, 저학년(1-3학년) 학부모의 비율이 57.4%로 고학년(4-6학년)에 비해 약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자녀의 성적에 대해서는 과반수의 학부모가 상위권(53.4%)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하위권(8.8%)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0%에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78.8%가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 2012년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의 응답(64.1%)에 비해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었다(김소영, 진미정, 2015).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표 4와 같

표 4.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의 특성: 기술통계

(N = 788)

구분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SD)	왜도	첨도
자녀요인	학교생활과악	1.40	5.00	3.97(.64)	-.31	-.02
	학교생활적응	2.00	5.00	4.12(.59)	-.31	.07
학교관련 요인	교육정보제공 만족도	1.00	4.00	2.92(.46)	-.53	2.27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	1.00	4.00	2.57(.60)	-.35	-.22
	학교참여지원 만족도	1.00	4.00	2.68(.53)	-.60	-.13
	자녀영향정도	1.00	4.00	2.92(.54)	-.36	1.00
동기요인	학교교육발전 기여도	1.00	4.00	2.88(.52)	-.64	1.86
	부모효능감	1.82	5.00	3.63(.53)	-.32	.61
	부모-자녀 동일시	1.00	5.00	3.56(.64)	-.40	.85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1.63	5.00	3.46(.46)	-.05	.69

다. 자녀 관련 요인 중 학교생활과악 평균은 5점 만점에 3.97점($SD = .64$), 학교생활적응 평균은 5점 만점에 4.12점($SD = .59$)으로 대체로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적응 수준 또한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가 평가한 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정보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4점 만점에 2.92점($SD = .46$), 학교교육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시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에 대한 평균은 2.57점($SD = .60$), 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활동 만족도 평균은 2.68점($SD = .53$)으로 전반적으로 중간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학부모의 학교참여 동기 요인 중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4점 만점에 2.92점($SD = .54$), 학교교육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는 2.88점($SD = .52$)으로 대체로 학교참여가 자녀와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효능감 평균은 5점 만점에 3.63점($SD = .53$), 부모-자녀 동일시 평균은 3.56점($SD =$

.64),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평균은 3.46점($SD = .46$)으로 연구대상 학부모의 부모효능감,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중시하는 신념 및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실체는 중간 이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의 일반적 경향

연구대상자의 학교참여 여부를 세부활동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먼저 학교 운영 및 지원 활동에 해당하는 세부활동별 참여율은 자녀 관련 자원봉사의 참여율이 73.4%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육기부(52.3%), 학교 관련 자원봉사(37.6%), 학부모회 활동(32.9%) 순으로 나타났다. 자원봉사 활동 중에서도 자녀와 직접 관련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학부모 참여율은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학부모회 참여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교육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세부활동별 참여율은 면대면 상담의 참여율이 84.1%로 가장 높았으며

표 5. 활동별 학부모 학교참여 여부

(N = 788)

구분	세부활동	n (%)	
		참여	비참여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자원봉사(자녀 관련)	578 (73.4)	210 (26.6)
	자원봉사(학교 관련)	296 (37.6)	492 (62.4)
	교육기부	412 (52.3)	376 (47.7)
	학부모회 활동	259 (32.9)	529 (67.1)
자녀교육 관련 활동	면대면 상담	663 (84.1)	125 (15.9)
	비면대면 상담	638 (81.0)	150 (19.0)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313 (39.7)	475 (60.3)
	온라인 학부모교육	122 (15.5)	666 (84.5)

며, 다음으로 비면대면 상담(81.0%), 오프라인 학부모교육(39.7%), 온라인 학부모교육(15.5%)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 참여율이 비교적 높았던 것은 학부모 상담주간 등 1년에 1회 이상 교사와 상담 기회를 갖게 되며,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필요할 때마다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의논하는 비면대면 상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상담은 자녀교육에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교사와의 소통을 매개로 하므로 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의무감이 높을 수 있는데, 학부모교육은 강제성이 없으며 학부모 자신의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므로 참여 동기가 다양할 수 있다. 또한 상담의 경우 면대면 상담과 비면대면 상담의 참여율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학부모교육의 경우 오프라인 교육과 온라인 교육 참여율에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 온라인 학부모교육의 접근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온라인 학부모교육 프

로그램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종합하면,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 모두, 자녀와 보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활동에 학부모가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활동별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 분석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부활동별로 분석하기 위하여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요인, 학교 관련 요인, 동기 요인을 투입하여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 중 연속변수들의 분산팽창계수(VIF)는 1.22~1.93의 범위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세부활동별로 독립변수들의 승산비(odds ratio; OR)를 산출하여 해당 활동에 참여할 확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자원봉사, 교육기부, 그리고 학부모회 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자녀 관련 자원

표 6.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구분	변수(기준집단)		자원봉사 (자녀 관련)	자원봉사 (학교 관련)	교육기부	학부모회
			OR	OR	OR	OR
사회 인구 학적 요인	응답자(아버지)	어머니	1.18	.68	.81	.85
	교육수준(2년제 이하)	4년제 대졸 이상	1.01	1.33	1.20	1.89**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 미만)	300~599만원	.69	.66	.73	.56
		600만원 이상	.86	.78	.85	.68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95	.69*	.72*	.65*
		읍면지역	.76	.76	.89	1.00
자녀 요인	맞벌이여부(외벌이)	맞벌이	1.08	.78	1.34	1.03
	성별(남아)	여아	1.16	1.11	1.21	.97
	학년(저학년)	고학년	1.39	1.79***	1.40*	1.15
	성적(상위권)	중위권	1.10	1.37	1.37	.82
		하위권	1.44	2.06*	1.72	1.48
	학교생활과악		1.24	1.10	.97	1.22
학교 관련 요인	학교생활적응		.72	.78	.94	.83
	교육정보제공 만족도		.94	.74	.84	1.10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		.77	.98	1.06	1.28
	학교참여지원 만족도		1.08	1.30	1.12	1.38
동기 요인	학교운영주체인식		1.54*	1.78**	1.22	1.76*
	자녀영향정도		1.12	2.16***	1.20	1.48*
	학교교육발전 기여도		1.30	1.38	1.67**	1.78**
	부모효능감		1.26	1.35	1.17	1.12
	부모-자녀 동일시		1.00	.74	.97	1.27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1.98**	2.81***	1.72*	1.06
LR χ^2			47.05**	126.89***	60.74***	104.92***
Pseudo R^2			.08	.20	.10	.17

* $p < .05$. ** $p < .01$. *** $p < .001$.

봉사 참여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8%이었다($\chi^2 = 47.05, p < .01$). 투입한 요인들 중 동기 요인만이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났는데, 학교운영주체임을 인식하는 경우($OR = 1.54, p < .05$),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OR = 1.98, p < .01$) 자녀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련 자원봉사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0%이었다($\chi^2 = 126.89, p < .001$).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OR = 1.79, p < .001$),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인 경우($OR = 2.06, p < .05$), 학교운영주체임을 인식하는 경우($OR = 1.78, p < .01$), 학부모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OR = 2.16, p < .001$),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OR = 2.81, p < .001$) 학교 관련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OR = .69, p < .05$).

교육기부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0%이었다($\chi^2 = 60.74, p < .001$). 자녀가 고학년인 경우($OR = 1.40, p < .05$), 학부모 참여가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OR = 1.67, p < .01$),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OR = 1.72, p < .05$) 교육기부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교육기부 참여 가능성이 더 낮았다($OR = .72, p < .05$).

마지막으로 학부모회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7%이었다($\chi^2 = 104.92, p < .001$).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OR = 1.89, p < .01$), 학교운영주체임을 인식하는 경우($OR = 1.76, p < .05$), 그리고 학부모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OR = 1.48, p < .05$)과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OR = 1.78, p < .01$) 학부모회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학부모회 참여 가능성이 더 낮았다($OR = .65, p < .05$).

자녀교육 관련 활동

초등학생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활동에 해당하는 면대면 상담, 비면대면 상담,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온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먼저, 면대면 상담 참여 여부 결정요인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4%이었다($\chi^2 = 64.84, p < .001$). 아버지보다 어머니인 경우($OR = 2.27, p < .05$),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 만족도가 높을수록($OR = 2.08, p < .01$), 학부모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OR = 1.78, p < .01$),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OR = 2.01, p < .05$) 면대면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표 7. 학부모 학교참여 결정요인: 자녀교육 관련 활동

구분	변수(기준집단)		면대면	비면대면	오프라인	온라인
			상담	상담	학부모교육	학부모교육
			OR	OR	OR	OR
사회 인구 학적 요인	응답자(아버지)	어머니	2.27 [*]	1.23	1.47	.93
	교육수준(2년제 이하)	4년제 대졸 이상	1.51	.72	1.59 [*]	1.41
	월평균 가구소득	300~599만원	1.12	.52	.80	.86
	(300만원 미만)	600만원 이상	1.21	.72	.52	.74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65 [*]	1.39	.84	.61 [*]
		읍면지역	.78	1.17	1.47	.66
	맞벌이여부(외벌이)	맞벌이	.88	2.01 ^{**}	.98	1.17
자녀 요인	성별(남아)	여아	.93	1.41	1.29	1.37
	학년(저학년)	고학년	.93	.73	1.24	.93
	성적(상위권)	중위권	.99	1.05	.74	1.42
		하위권	1.10	4.87 ^{**}	3.38 ^{***}	1.57
	학교생활파악		1.13	1.62 [*]	1.54 [*]	.97
	학교생활적응		.61 [*]	.49 ^{**}	.58 ^{**}	.85
	학교 관련 요인	교육정보제공 만족도	2.08 ^{**}	1.25	.90	1.12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		1.05	1.22	1.08	1.05	
학교참여지원 만족도		.94	1.07	1.57 [*]	1.47	
동기 요인	학교운영주체인식		1.49	1.05	2.34 ^{***}	3.65 ^{**}
	자녀영향정도		1.78 ^{**}	1.42	1.71 ^{**}	1.95 ^{**}
	학교교육발전 기여도		1.25	1.60 [*]	1.33	1.03
	부모효능감		1.19	1.62 [*]	2.00 ^{***}	1.47
	부모-자녀 동일시		.94	1.08	.70 [*]	1.01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2.01 [*]	1.55	1.80 [*]	1.86 [*]	
LR χ^2			64.84 ^{***}	78.40 ^{***}	146.73 ^{***}	81.26 ^{***}
Pseudo R^2			.14	.15	.23	.17

* $p < .05$. ** $p < .01$. *** $p < .001$.

(OR = .65, $p < .05$),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OR = .61, $p < .05$) 참여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면대면 상담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5%이었다($\chi^2 = 78.40, p < .001$). 맞벌이 가정인 경우($OR = 2.01, p < .01$),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인 경우($OR = 4.87, p < .01$),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OR = 1.62, p < .05$), 학부모 참여가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OR = 1.60, p < .05$), 그리고 부모 효능감이 높을수록($OR = 1.62, p < .05$) 비면대면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 면대면 상담 참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OR = .49, p < .01$).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23%이었다($\chi^2 = 146.73, p < .001$).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OR = 1.59, p < .05$), 자녀의 성적이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인 경우($OR = 3.38, p < .001$), 자녀의 학교생활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OR = 1.54, p < .05$), 학교의 학부모 참여 지원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OR = 1.57, p < .05$), 학교운영주체임을 인식하는 경우($OR = 2.34, p < .001$), 학부모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OR = 1.71, p < .01$),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OR = 2.00, p < .001$),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OR = 1.80, p < .05$) 오프라인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게 평가할수록($OR = .58, p < .01$), 부모-자녀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OR = .70, p < .05$)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설명력은 17%이었다($\chi^2 = 81.26, p < .001$). 학교운영주체임을 인식하는 경우($OR = 3.65, p < .01$), 학부모 참여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높게 평가할수록($OR = 1.95, p < .01$), 그리고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OR = 1.86, p < .05$) 온라인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도시에 비해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가능성이 더 낮았다($OR = .61, 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활동 특성에 따라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자녀 관련 자원봉사, 학교 관련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면대면/비면대면 상담, 오프라인/온라인 학부모교육)으로 구분하여 세부활동에 따른 참여 결정요인을 탐색하고, 활동 특성에 따라 결정요인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참여 결정요인은 사회인구학적 요인(성별, 교육수준, 가구소득, 거주지 규모, 맞벌이 여부), 자녀 요인(성별, 학년, 성적, 학교생활파악, 학교생활적응), 학교 관련 요인(교육정보제공 만족도, 학부모의견 반영 정도, 학교참여지원 만족도), 그리고 동기 요인(학교운영주체 인식, 자녀 영향 정도, 학교교육발전 기여도, 부모효능감, 부모-자녀 동일시, 가정에서의 교육지원)으로 나누어 각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 여부에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주지 규모가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인 경우에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학교 관련 자원봉사, 교육기부, 학부모회)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면대면 상담, 온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가능성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거주지의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참여 수준이 더 높고(김소영, 진미정, 2015), 학교 방문이나 학부모모임 참여 빈도가 더 높았으나(변수용, 김경근, 2008; Feuerstein, 2000), 본 연구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의 거주지 규모는 곧 학교의 규모를 의미하였는데,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학교와 학부모, 학부모들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이 가능하므로 참여 수준이 더 높게 나온 것으로 해석하였다(김소영, 진미정, 2015).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거주지 규모가 곧 학교-학부모 간 네트워크의 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단위학교별로 학교참여에 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및 학교참여 문화에 따라 학부모 참여 수준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학부모회 활동, 면대면 상담 운영, 온라인 학부모교육 등 다양한 학부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위치한 학교들이 더욱 접근성 높은 인프라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더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참여 활동 중 아버지보다 어머니

가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과 부모의 교육수준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활동은 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학교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높은 부모가 학교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김소영, 진미정, 2015; 이현아, 진미정, 2012; Stacer & Perrucci, 2013). 그러나 세부활동을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활동은 교사와의 면대면 상담뿐이었고, 교육수준은 학부모회 참여 및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참여 여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참여 여부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학부모 역할이 어머니를 중심으로 수행(김소영, 진미정, 2015)되어 왔던 것에서 벗어나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에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교육수준은 구체적으로 학부모회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활동이나 오프라인 학부모교육과 같이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맞벌이 부모의 경우 비면대면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만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 또한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참여 간의 부적인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들(김소영, 진미정, 2015; 최상근 등, 2011; Weiss et al., 2003)과 상반되는 결과이다. 맞벌이 부모, 즉 어머니의 취업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반적으로 학교참여를 감소시키는 요인(김소영, 진미정, 2015)으로 밝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부활동별로 맞벌이 여부에 따른 참여 가능성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고, 오히려 비면대면 상담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방문을 위한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맞벌이 부모의 경우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비면대면 방식으로 교사와 소통하며 자녀와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녀 관련 요인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 더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었다. 특히 성적, 자녀의 학교생활을 파악하고 있는 정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자녀교육 관련 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관련 변인 또한 학부모가 응답하였으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자녀의 학업수행 및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대한 부모의 주관적인 인식이 포함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의 성적을 상위권보다는 하위권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낮게 평가할수록 상담과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우수한 성적이 학교참여의 동기가 되었으나(김소영, 진미정, 2015; 변수용, 김경근, 2008; Feuerstein, 2000),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에 자녀교육 관련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와 상반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학부모 학교참여 세부활동별로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자녀의 우수한 성적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학교참여의 동기가 될 수 있으나, 자녀교육과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담 및 학부모교육과 같은 활동에는 자녀의 학업

성취 및 학교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학교생활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평가할수록 비면대면 상담과 오프라인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이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지식과 정보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예측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소영, 진미정, 2015; Hoover-Dempsey & Sandler, 1997)를 뒷받침한다. 다만, 학교생활파악 정도는 학부모 학교참여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학교 관련 요인 또한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교육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만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정보 만족도가 높을수록 면대면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고, 학교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오프라인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즉,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자녀교육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자녀교육과 관련된 활동 참여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학부모의 학교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학부모와의 소통을 시도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주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선행연구(김은영 등, 2019)를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교 관련 요인들은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참여 여부에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부모회 등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실천적인 노력과 함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본 연구에 포함된 학교 관련 요인들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설문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학교 차원의 변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학부모의 주관에 개입할 수 있는 만족도 등을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동기 요인은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 운영 및 지원 활동과 자녀교육 관련 활동 참여 여부에 모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김소영, 진미정, 2015)에서도 학부모의 학교참여 동기가 되는 요인들은 모든 학교급에서 전반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변수들이었다. 먼저, 학부모 자신이 학교 운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는 경우 교사와의 상담을 제외한 자원봉사, 학부모회와 같은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온라인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모두 더 높았다. 선행연구(Anderson & Minke, 2007; Sheldon, 2002)에서도 학교운영주체 인식은 초등학생 학부모 학교참여의 주요 동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학교참여가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를 높게 평가할수록 교육기부와 학부모회에 참여할 가능성을 더 증가시켰다는 결과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이며 학부모 참여가 실질적으로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 제고를 통한 동기부여가 실제 참여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효능감의 경우 자녀교육 관련 활동 참

여 여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부모효능감이 높을수록 비면대면 상담과 오프라인 학부모교육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선행연구(김소영, 진미정, 2015)에서 초등학생 학부모의 부모효능감은 학교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활동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교사와의 비면대면 소통과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참여 여부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역량이 낮고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자신감이 낮은 부모는 학교참여 활동 또한 위축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학령기를 거치는 동안 초기 적응기, 고학년 전이기 등 주요 발달단계에 따라 적절하게 부모역할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부모효능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학부모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동기 요인 중 교육열을 반영하는 부모-자녀 동일시 수준은 오프라인 학부모교육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부모-자녀 동일시 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학부모교육 참여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 자녀의 학업성취를 중시하며 자녀의 교육적 성공을 부모의 성공으로 여기는 교육열이 학교참여의 주된 동기라는 선행연구(주동범, 2018)와 상반된 결과이다. 즉, 자녀의 교육적 성취를 열망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학부모 자신의 역량강화를 위한 활동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동일시 수준보다는 교육열의 실천적 측면을 반영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 수준이 상담, 학부모교육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와 교육기부 참여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활동은 학습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의 일상생활에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며, 교육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문화적 경험을 쌓도록 지원하는 등 자녀교육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노력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심미옥, 2003). 가정에서 자녀교육과 관련된 관심과 지원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서의 학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더 높은 관심을 가지며 실제로 더욱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는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인성발달, 학업성취, 교우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평가할수록 면대면 상담, 학교 관련 자원봉사, 학부모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도 연결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대한 관심과 가정에서의 지원 정도, 학부모 참여와 자녀 발달과의 관련성에 대한 인식이 학교활동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며, 학교참여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 변화를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교참여 활동유형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자녀, 학교 및 동기 요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공통적으로는 활동유형에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보다 학부모의 참여 동기와 관련된 내부적 요인이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김소영, 진미정, 2015)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참여 동기 요인 중에서도 학교교육의 적극적

인 주체로서의 인식,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평가, 그리고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활동 수준에 따라 자녀교육 관련 활동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에의 참여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는 학부모의 학교참여가 단순히 자녀의 학업성취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주체로서의 학부모 인식을 바탕으로 자녀교육의 다양한 측면에서 학부모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동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참여 세부활동을 구분하여 분석하였을 때 활동별로 결정요인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학교참여 관련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의 양상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학부모의 자녀 관련 자원봉사 활동 참여에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자녀 및 학교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초등학교 학부모의 경우 자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안전 및 모니터링 관련 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활동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자녀 관련 봉사활동의 참여율이 73.4%로 높게 나타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각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맞벌이 부모의 경우 비면대면 상담에 참여할 가능성만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의 성적이 하위권인 경우 참여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이 다양하고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활동 특성에 따라 참여 활성화 방안이나 제도적 지원이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학교운영 및 지원 활동 내에서도 자원봉사는 자녀의 학교생활 및 안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고 활동의 연속성이 비교적 낮아 참여 장벽이 낮은데 반해, 학부모회 활동은 학교운영과 관련되며 더욱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참여가 요구되므로 부담감을 더욱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면대면/비면대면 상담의 경우 자녀의 학교생활 및 적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교사와의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 촉진 동기가 더욱 부여될 수 있는 반면, 학부모교육의 경우 학부모의 자발적인 필요성 인식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제언한다면, 학부모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주체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학부모 참여가 자녀의 발달과 학교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을 알리는 것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부모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모효능감 증진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학부모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학부모교육을 제공하고 융통성 있게 시간을 운영하며, 온라인 학부모교육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와 이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온라인 조사를 통해서 수집되었으므로,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고 조사에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은 학부모 집단의 특성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학부모 집단의 특성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학

교 요인의 측정과 분석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학교 관련 요인의 영향력은 면대면 상담, 오프라인 학부모교육 등 일부 자녀교육 관련 활동에서만 유의한 결정요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관련 변인에 대한 조사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제한된 요인만 포함되었으며 학부모의 인식과 만족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되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학교 요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학부모 참여는 학부모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학교 차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김은영 등, 2019). 셋째, 본 연구는 초등학생 학부모의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 참여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탐색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들의 인과적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각 활동별로 중단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의 지속성 및 자녀 학년에 따른 변화 추이 등을 포함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나아가 후속연구들에서 학부모 학교참여를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진 변수들의 영향력이 활동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검증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학교교육 활동에 따라 초등학생 학부모의 참여 결정요인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므로 초등학생 학부모의 학교참여 양상에 따른 유형을 구분하여 이와 관련된 예측요인 및 결과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학부모 참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보다 풍부한 논의

가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3). **학부모 교육 업무 매뉴얼**.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순범, 김월섭, 진미정 (2017). 학부모 학교참여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7(12), 119-138.
<https://doi.org/10.22251/jlcci.2017.17.12.119>
- 김세리, 이수현, 구예진, 이강이 (2016). 학부모 학교참여가 부모효능감을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4), 139-154.
<https://doi.org/10.15284/kjhd.2016.23.4.139>
- 김소영, 진미정 (2015). 초·중·고 학교급별 학부모 학교참여 관련요인. **가족과 문화**, 27(2), 27-60.
<https://doi.org/10.21478/family.27.2.201506.002>
- 김은영, 권순범, 진미정 (2018). 중학교 학부모의 학교참여 영향 요인에 대한 다층모형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521-540. <https://doi.org/10.22251/jlcci.2018.18.5.521>
- 김은영, 장유진 (2020). 학부모교육 필요성 인식에 따른 학부모 잠재집단 추정. **한국웰니스학회지**, 15(4), 453-465.
- 김은영, 진미정, 김월섭, 오재길 (2019). **교원 대상 학부모 학교참여 연수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김지영, 이강이 (2020). 어머니의 교육참여가 초등학교 1학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사-학부모 관계의 상호작용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2(1), 81-104.
<https://doi.org/10.36431/JPE.12.1.5>
- 류방란, 김경애, 임후남, 이성희, 양희준, 황지원 (2015).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실태 및 정책 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https://doi.org/10.23000/TRKO201600011307>
- 변수용, 김경근 (2008). 부모의 교육적 관여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정배경의 영향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1), 39-66. <https://doi.org/10.32465/ksocio.2008.18.1.003>
- 심미옥 (2003). 초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교육 지원활동에 관한 연구. **초등교육연구**, 16(2), 333-358.
- 양수경, 김현철, 남진현 (2011). 의사결정나무 분석 방법을 이용한 학부모의 학교참여활동 관련 요인 탐색. **한국교육**, 38(3), 315-342. <https://doi.org/10.22804/jke.2011.38.3.013>
- 이강이, 박새롬 (2020). **2019년 학부모의 자녀 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조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강이, 진미정, 박혜준, 김은영, 김영선, 박새롬 (2020). **학부모정책 10년의 성과와 과제**.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강이, 최인숙, 서현석 (2013). **학부모 학교참여와 아동·청소년의 적응**.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이세용 (2003). 학부모 학교참여가 학교 및 교사 평가에 미치는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13(2), 185-208.
- 이현아, 진미정 (2012). 취업 부모의 학교참여

- 경험 및 학교참여휴가제에 대한 요구. *대한한가정학회지*, 50(6), 119-130.
<https://doi.org/10.6115/khea.2012.50.6.119>
- 임선아 (2011).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참여 효과: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 검증. *아동교육*, 20(4), 221-233.
- 전은희, 강민수 (2013). 중학교 학부모들의 학부모회 참여 동기와 의미 및 그 맥락에 대한 탐색: 서울 Y중학교를 중심으로. *미래교육학연구*, 27(2), 153-194.
- 전은희, 서덕희 (2014). 학부모회 활성화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서울 Y중학교를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32(3), 235-268.
- 주동범 (2018). 학부모 학교활동 참여의 교육적 시사점 고찰. *학부모연구*, 5(2), 1-18.
- 진미정, 김봉제, 권순범 (2019). 학부모 교육참여 척도 개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 최상근, 김형주, 전선미 (2011). 2011년 학부모의 자녀교육 및 학교참여 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인숙, 이강이 (2013). 학부모 교육기부 예측요인 탐색: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3(6), 309-328.
- 홍송이 (2016).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을 적용한 학부모의 자녀 학교교육 참여동기 탐색. *학부모연구*, 3(1), 55-73.
- Anderson, K. J., & Minke, K. M. (2007). Parent involvement in educat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parents' decision making.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0(5), 311-323.
<https://doi.org/10.3200/JOER.100.5.311-323>
- Epstein, J. L. (2010). School/family/community partnerships: Caring for the children we share. *Phi Delta Kappan*, 92(3), 81-96.
<https://doi.org/10.1177/003172171009200326>
- Fan, X., & Chen, M. (2001). Parental involvement and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3(1), 1-22.
<https://doi.org/10.1023/A:1009048817385>
- Feuerstein, A. (2000). School characteristics and parent involvement: Influences on participation in children's school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94(1), 29-40.
<https://doi.org/10.1080/00220670009598740>
-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Hill, N. E., & Tyson, D. F. (2009). Parental involvement in middle school: A meta analytic assessment of the strategies that promote achieve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3), 740-763. <https://doi.org/10.1037/a0015362>
- Hoover-Dempsey, K. V., & Sandler, H. M. (1997).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7(1), 3-42.
<https://doi.org/10.2307/1170618>
- Hoover-Dempsey, K. V., Walker, J. M. T., Sandler, H. M., Whetsel, D., Green, C. L., Wilkins, A. S., & Closson, K. (2005). Why do parents become involved? Research findings and implications.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 106(2), 105-130.
<https://doi.org/10.1086/499194>
- Jeynes, W. H. (2007).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involvement and urban secondary school student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Urban Education*, 42(1), 82-110.
<https://doi.org/10.1177/0042085906293818>
- Seginer, R. (2006). Parents' educational involvement: A developmental ecology perspective.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6(1), 1-48.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601_1
- Sheldon, S. B. (2002). Parents' social networks and beliefs as predictors of parent involvement. *The Elementary School Journal*, 102(4), 301-316.
<https://doi.org/10.1086/499705>
- Stacer, M. J., & Perrucci, R. (2013). Parental involvement with children at school, home, and community.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34(3), 340-354.
<https://doi.org/10.1007/s10834-012-9335-y>
- Weiss, H. B., Mayer, E., Kreider, H., Vaughan, M., Dearing, E., Hencke, R., & Pinto, K. (2003). Making it work: Low-income working mothers' involvement in their children's education.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0(4), 879-901.
<https://doi.org/10.3102/00028312040004879>

1 차원고접수 : 2021. 06. 30.
수정원고접수 : 2021. 08. 16.
최종게재결정 : 2021. 09. 27.

Factors Associated with Parental School-based Involvement in Elementary School by Activity Type

Park, Saerom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Lee, Kangyi

Dep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Research Institute of Human Ec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socio-demographic, child-related, school-related, and motivational factors associating the school-based involvement of parents wi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Descriptive statistics and binomi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on the data of 778 parents in the Survey on Parental Education and School Participation conducted by the Family-School Policy Research Center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Parental involvement activities were divided into school supporting activities (child-related/school-related volunteer work, educational donation, and parents' association) and children's education-related activities (offline/online parent consultation and offline/online parent education)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ies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on eight detailed activit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associating the parental participation in each activity were different, and the influence of the related factors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had changed. Regardless of activity type, it was found that internal motivational factors related to parental participation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external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discussed that parental school-based involvement activities have heterogeneous characteristics, and policy support for enhancement in participation need to be subdivid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ity.

Keywords: parental school-based involvement, volunteer work, educational donation, parents' association, parent consultation, parent education